

5/12(화) 소설 '동백꽃'의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꾼다면? (1인칭 주인공 시점)

▼ 주의: 소설 '동백꽃'의 두 주인공은 여러분보다 더 큰 열일곱 살입니다. 우리 함께 열일곱 살 두 남녀의 연애 이야기를 감상해 봅시다.

* 필수항목

서술자를 파악하며 소설 감상하기 단원

관련 교과서 단원: 1. 문학의 눈 (2) 이야기 속 시선 (교과서 26쪽 ~ 45쪽)

1. 학번, 이름 *

예) 20115 홍길동

<핵심 이론 정리>

- 소설 속의 '서술자': 소설 속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이야기(서술)해주는 사람.
- 시점: 서술자의 위치
- 소설 '동백꽃'의 시점은 '1인칭 주인공 시점'입니다.
- <1인칭 주인공 시점>
등장인물이 이야기를 서술함.
등장인물 중 주인공인 '나'가 자신이 겪은 일이라며 이야기를 서술함.(1인칭 주인공 시점: 서술자=주인공)

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의 예

안녕 독자들~ 나는 소설 '동백꽃'의 남자 주인공이야. 나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줄게. 이제부터는 글로 서술해줄게. 나는 울타리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. 그런데 점순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을 계속 걸어서 너무 어색했다. 그러더니 이 계집애가 "니네 집엔 이런 거 없지?"라고 생색을 내며 감자를 내미는 걸 보며 자존심이 상했다. 그래서 고개도 돌리지 않고 울타리를 만들던 손으로 그 감자를 쑥 밀어버렸다. 나는 점순이가 '안 먹을 거면 말아라. 흥!'하고 갈 줄 알았는데 화가 잔뜩 나서 씹씹거리는 소리가 들린다. 이건 또 뭔가 싶어서 돌아보자 점순이의 얼굴이 새빨갳다. 한참 동안 나를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글썽글썽하다. 그러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눈독으로 횡하니 달아나 버렸다. 아, 황당하다. 재가 왜 저러지?

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를 여자 주인공 '점순이'로 바꿔보면 어떨까요?

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인공을 여자 주인공인 '점순이'로 바꿔보면 어떨까요? 적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점순이의 생각과 속마음, 성격을 표현할 수 있어서 더 재밌지 않을까요?

참,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뭐로 지어줄까요?

소설 '동백꽃'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새로 지어줘야 할 거예요. 뭐로 지어 줄까요? '김남주'라고 지어줄까요? '김덕수'는 어떤가요? 아래에 여러분이 새로 쓰는 소설에서 여러분이 지어주고 싶은 이름을 지어주세요.

2. 질문1. 소설 속 서술자를 여자 주인공인 '점순이'로 바꾸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을 써 봅시다. (열 줄 이상 적어보세요.) *

(전체 줄거리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. 쓰고 싶은 부분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.) (예) 나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열입곱 살 꽃다운 청춘 김점순이다. 나는 지금 엄마가 일하러 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부엌에 몰래 숨어서 정성스럽게 감자 세 개를 굽고 있다.

3. 질문2. 점순이가 서술자인 새 소설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? *

점순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주는 시점의 매력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.

4. 질문3. 남자 주인공이 서술자였던 원래의 '동백꽃' 소설은 어떤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나요? *

남자주인공이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이야기해주던 원래 소설의 매력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.

5. <오늘 수업을 마치며> “오늘 수업에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?” (※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.)

(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?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나요?)

이 콘텐츠는 Google이 만들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.

Google 설문지